

오브젝트엔진(ObjectEngine)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 보호

요약

디스크-투-디스크-투-테이프(D2D2T)와 같은 기존 백업 아키텍처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플래시,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은 데이터센터에 또 다른 차원의 성능과 사용편의성을 불러왔습니다. 퓨어스토리지 오브젝트엔진(ObjectEngine) 솔루션이 지원하는 현대적 데이터 보호는 플래시와 클라우드의 장점을 극대화 합니다. 오브젝트엔진(ObjectEngine)은 업계 최초로 플래시-투-플래시-투-클라우드(F2F2C) 플랫폼을 제공하여,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의 데이터 보호를 현대화 할 수 있는 플래시와 클라우드의 장점을 극대화 합니다.

플래시와 클라우드의 시대, 백업을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네이티브 앱 유ти리티,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 또는 백업 전용 어플라이언스(PBBA)를 기반으로 한 디스크-투-디스크-투-테이프(D2D2T) 백업 전략은 수십 년간 백업 성능에는 최적화 되어 있었으나 복구 기능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 왔습니다. 백업 전용 어플라이언스(PBBA) 시스템은 복구 속도가 백업 속도 대비 최대 10배 가량 느립니다. 그러나 퓨어스토리지의 오브젝트엔진(ObjectEngine)을 사용하면,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환경에 구애 없이 고성능 스케일-아웃이 제공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으로 업무 및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워크플로우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오브젝트엔진(ObjectEngine)은 네이티브 유ти리티와 서드파티 데이터 보호 기술을 상호 호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터프라이즈-레디:

안전하고 내구성 높은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이티브 S3 인터페이스, 개방성,
통합 및 데이터 이동성 제공



단일 네임스페이스:

데이터센터 전반에 걸친 단일 데이터 허브 내
저장으로 높은 속도의 로컬 성능과
글로벌 데이터 보호 지원



확장가능성:

노드의 선형적 확장으로
수백 PB까지 지원이 가능,
수십 GB의 대역폭 제공



고속(Fast):

대량의 병렬식 아키텍처,
신속한 백업 및 스케일-아웃
복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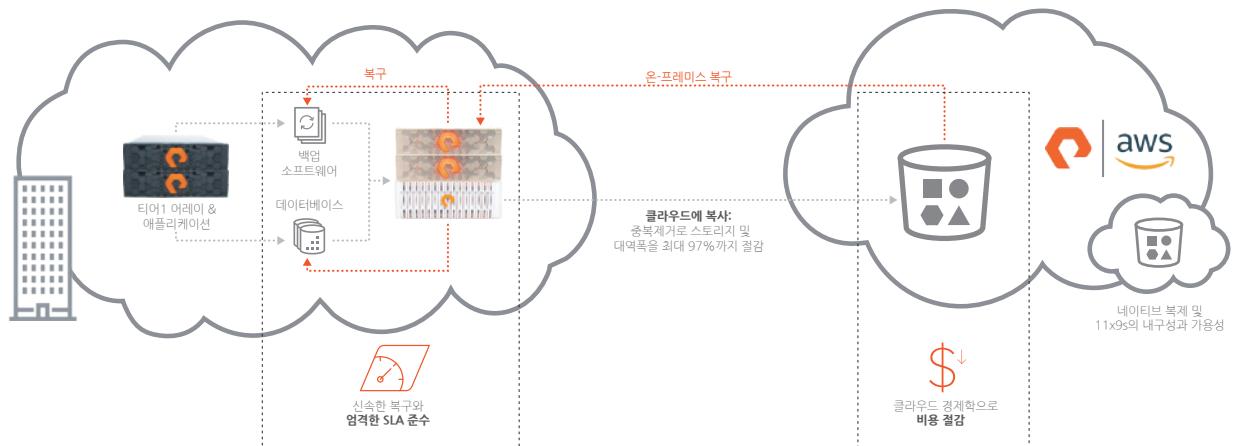


효율성:

97% 이상의 스토리지 및
대역폭 비용 절감으로 비용효율적으로
디스크 및 테이프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대체

IT 비용 최적화 및 데이터 재사용 유도

오브젝트엔진(ObjectEngine)은 디스크-투-디스크-투-테이프(D2D2T) 아키텍처와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복제를 위한 고비용의 오프사이트 인프라 대신 모든 사용자가 클라우드 경제학의 장점을 활용해 비용 최적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11x9s의 데이터 내구성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엔진(ObjectEngine)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가변길이(variable-length) 중복제거 기능을 제공해 기업의 최근 데이터를 퓨어스토리지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에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퍼블릭 클라우드 내의 모든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또한 오브젝트엔진(ObjectEngine)은 신속한 스케일-아웃 복구와 함께 분석과 테스트/개발 분야 관련 데이터 재사용을 위해 담당자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양

베이스 클러스터 (4노드)

노드 종류	오브젝트엔진//A270 (ObjectEngine//A270)
데이터 백업 속도 ¹	최대 25 TB/HR
데이터 복구 속도 ¹	최대 15 TB/HR
프론트엔드 용량 ¹	15 페타바이트
랙 유닛	6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노드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데이터(권장): 2 x 25 Gb/s 또는 4 x 10 Gb/s관리: 2 x 1 Gb/s
지원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 AWS S3 스토리지

¹워크로드에 따라 다르며 10:1 이상의 데이터 절감 비율을 전제로 함.

“IDT 관련 저의 비전은 비전은 비용 절감과 우리 인프라에 가능한 최대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브젝트엔진(ObjectEngine)은 퓨어스토리지가 스토리지에서 혁신적으로 창조한 기술을 백업에서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오브젝트엔진(ObjectEngine)을 구매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백업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구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데이빗 워텔, 최고기술책임자(CTO)

